

**
최 경 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대학 무용교육의 정착

1. 현대무용 도입 및 활성화
2. 무용단체 결성과 무용교육자 배출

III. 작품세계

1. 한국적 소재의 현대화, 세계화
2. 종교적 소재를 통한 춤의 대중화
3. 현대 춤의 대중화를 위한 다른 시도

IV. 연구 및 저술활동

1. 학문적 연구
2. 저술활동

V. 국제교류

1. 춤 교육을 위한 국제교류
2. 국내 안무가의 세계진출
3. 세계 청소년 무용축제

VI. 결론

참고문헌

* 이 논문은 육완순 현대무용 50년 페스티벌 원고를 보완한 내용임.

** 한성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논문투고일 : 2016.04.30.

논문심사일 : 2016.05.17.

게재확정일 : 2016.06.01.

A study on modern dance activities of Yuk, Wan-soon.

116

Choi, Kyung-hee
Hansung University

Yuk, Wan-soon is a one of the person who represents Korean modern dance. Wan-soon is a educator and a choreographer. She is referred to as a pioneer of Korean modern dance.

She studied at University of Illinois Graduate School and Martha Graham School of Contemporary Dance in 1961~1963. After returning home, she has taught American modern dance, Martha Graham dance technique at Kyung Hee and Ewha Womans University.

At that time, dance training was mainly conducted in studios. Alternatively, she strengthened modern dance through curricular or extracurricular lesson, regular concert, summer workshop etc.

Moreover, she founded dance company such as Orchesis(1963) and Korea Contemporary Dance Company(1975). She encouraged students to embody creative and experimental spirit through those organizations. Because of the systematic and specific education, modern dance became settle as part of university education and arts education.

Her artistic works vary from Korea and religious things, topic of environment and science related to day-to-day life. Especially, her concern as a choreographer side by side with flow of the era which intend to newly interpret and create materials of Korea. Due to contact with the various audience, modern dance spreads out in Korea and established a position as an art area.

In addition, she presented the direction and possibilities of dance studies on the basis of research and writing activity. Her main academic interests focused on choreography and improvisation, and modern dance. However, it encompassed the dance aesthetics, western dance history, anatomy, acting etc.

In 1985, she established the Modern Dance Promotion of Korea in cooperation with contemporary dance artists. Its original aim is to enhancedance arts in Korea and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dance exchange programs. Holding Korea Dance Festival, the Seoul International Choreography Festival are representative examples. She has been constantly tried to cultivate dance specialists and challenged globalization of Korean modern dance.

〈key words〉 cmodern dance, dance in higher education, enhance of specialty,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globalization of Korea modern dance

주요어) 현대무용, 고등무용교육, 전문인력 양성, 국제 교류, 한국 현대 춤의 국제화

1963년 최초로 이화여대 무용과가 개설되어 우리나라에서 무용이 대학 내에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무용(학)과는 1980년대와 90년에 걸쳐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어 2000년에는 38개의 대학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평가지표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예술계 학과의 통·폐합 과정을 거치고,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며 현재 43개(4년제 대학 기준)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그동안 무용(학)과는 소속대학의 행정상의 변화와 더불어 전공도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에서 사회무용 전공을 첨가하거나 안무자, 지도자 등 독특한 전공구분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와 다원화를 이루며 대학교육의 일환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최경희, 2005: 32).

이와 같은 한국의 고등무용교육의 발전과 관련하여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볼 인물은 육완순이다. 한국 현대무용의 개척자, 현대무용계의 대모, 교육자, 안무가, 경영가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가진 육완순의 활동 50년을 지나며 그동안 이룬 행적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내용은 관련 문헌 수집 및 분석, 개별 인터뷰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대학무용교육, 작품세계, 연구 및 저술, 국제 교류 등 4개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공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현대무용의 개척자로 불리는 육완순의 현대무용 활동을 분석하므로 한국 내 현대무용교육의 정착 및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II. 대학 무용교육의 정착

1. 현대무용 도입 및 활성화

대학에서 무용을 가르치기 전 우리나라의 무용교육은 유명 무용가들이 운영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1953년 이화여대 체육학과 내

무용교육을 시발점으로, 1963년 예술로서 무용의 자치권을 추구하는 독립된 무용과가 설립됨에 따라 무용교육의 세력은 점차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지도하던 교수는 일본의 서양무용을 주도해온 다카다 세이코로부터 사사 받은 박외선이다. 박외선은 발레와 현대무용을 지도하며, 동작이 갖는 상상력을 중시하여 모든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동작 이미지를 연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무용창작을 지도하는데 주력하였다(최경희, 2000:7).

이와 같은 실정에 비추어 한국 현대무용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은 박외선의 제자인 육완순이 60년대 초반 미국 일리노이 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귀국하여 미국식 현대무용 즉 **Martha Graham** 테크닉을 도입하여 소개하기 시작한 때부터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김희진, 1991:20). 1956년 이화여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부속 중고등교사를 거쳐 경희대 전임으로 재직 중이던 육완순은 도미하여 1961~1963년에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미국 마사 그레이엄 컨템포러리 무용학교 등에서 수학한다. 귀국 후 경희대 및 이화여대 무용과 전임강사로 재직하며 미국에서 배운 마사 그레이엄식 현대무용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시작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마사 그레이엄은 수축과 이완 **contraction & release** 이라는 독특한 움직임 기법을 개발하여 테크닉을 체계화하고 자신의 무용학교를 통해 수많은 제자를 양성해 냈다. 또한 미국적인 주제 《애팔래치아의 봄 **Appalachian Spring**》, 신화의 재해석 《마음의 동굴 **Cave of the Heart**》, 《밤의 여행 **Night journey**》을 통해 일상의 생활상, 질투와 분노, 갈등, 공포, 성에 상처받기 쉬운 여성 등 보편적인 인간심리를 작품화하여 전 세계에 알려진 무용가이다(김말복, 1992:229-235).

육완순은 마사 그레이엄 테크닉이라는 구체적인 실기 방법론을 토대로 학생들이 연구소를 가지 않고 대학에서도 충분히 무용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더불어 교과 외 레슨을 개설하여 실기를 강화하였다. 육완순이 유학 할 즈음인 1960년대와 대학 휴직 후 수학한 1970년대에 무용교육은

Martha Graham, Jose Limon, Merce Cunningham, Erick Hawkins 등 당대를 대표하는 무용가들의 이름을 붙인 테크닉을 기초로 훈련을 통해 양식화된 테크닉을 익히고 공연하는 형태가 교육의 주된 목표이며 활동이 되었던 시기이다(신은경, 1996:21-22).



그림 1. 이화여대 재직 시 -방과 후 워크숍 지도

육완순은 예술적 표현을 위한 기술적 수준을 연마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엄격한 연습과 훈련을 중요시하고, 이화여대 무용과 내에서도 유명한 새벽 레슨을 시작한다. 부지런하고 현대무용 향학열에 불타오른 학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 연습에 참여 할 수 있었다. 정규 교육과정 외 방과 후 및 새벽 레슨을 통해 학생들은 연구소가 아닌 대학에서도 강도 높게 무용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육완순은 1967~68년 이화여대 체육대학 학생과장과 1969~75년 무용과 과장을 역임하며, 예술가로서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도모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관계 학문과의 교류 및 소통을 위해 미술, 조각, 음악, 문학 등에 기반 한 세미나 및 예술 심포지엄 개최를 들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폭 넓은 실기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교수진들을 초청하여 **summer dance school**을 개최하였다. 여름무용학교의 경우 대학생 외에 고등학생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현대무용의 확산 및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는 동아일보 언론사 주최 및 후원 하에 1963년 **Jose Limon** 무용단, 1966년 **Paul Taylor** 무용단 등이 내한하여 공연 및 워크숍을 진행하므로 미국 현대무용을 접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분위기였다(육완순, 2003:75). 이와 같은 대외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1967년 **Pauline Koner**와 1969년 **Evelin Lokeman**이 방한하여 안무법과 커닝햄 및 호세 리몽 테크닉을 지도하였다. 여름무용학교와 더불어 1972년 10개월간의 미국 체류(샌디에고 대학, 샌디에고 고등학교, 일리노이 대학 등에서 특강)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공연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재학생 월례 발표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육완순 개별 면담, 2012년 9월 10일).

배출된 제자들이 대학 전임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화여대의 교육체계는 하나의 표본이 되고, 각 대학 무용(학)과 개설과 더불어 학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무용단체의 결성과 무용교육자 배출

우리나라 현대 춤의 성장과 발전은 대학생 현대무용단인 오케시스가 창단된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이순열 외 2인, 1993:47). 육완순은 일리노이 대학의 오케시스 무용단의 영향을 받아 경희대학교 전임시절인 1963년 대학생 현대무용단인 오케시스를 창단한다. 당시 무용하는 사람은 모두 체육과 학생들이었는데, 1963년 하반기 YWCA에서 대학생 대상의 현대무용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오케시스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육완순 개별면담, 2012년 9월 10일).

1963년 9월 25일 오케시스 무용단과 함께 한 1회 발표회에서는 《Basic movement》, 《미국의 인상》, 《흑인영가》, 《공포》, 《마음의 파도》, 《논개》 등을 공연하였다. 당시는 현대무용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시기로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최승희, 조택원 류의 신무용이 현대무용으로 인식되던 때이며, 더욱이 귀족적이며 우아한 것을 추구하는 발레와 사뭇 다른 춤사위로 인해 공연에 대한 논란이 컸다. 우리나라 무용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신세대의 출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맨발로 뛰며 구르는 모습에 대부분이 무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라는 맹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육완순은 인습과 형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그 무엇도 표현할 수 없을 거라는 현대무용 정신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였다(육완순, 2003:68-70).

무한한 상상력과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동경은 1975년 창단된 컨템포러리 무용단을 통해 이어진다. 이화여대 무용과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된 컨템포러리 무용단은 무용계 전반에 걸쳐 창작의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현대무용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이는 보다 진보적이고 창작지향적인 한국 창작 춤 운동과 보다 실험 지향적인 발레 공연에 하나의 자극이 되었다. 1980년대는 컨템포러리 2세대격인 탐이 발족되었고 공간극장을 중심으로 발표무대를 확장해 나갔으며,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현대무용협회가 결성된 뒤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이순열 외 2인, 1993:51).

1980년 한국컨템포러리 무용단에 의해 시작된 공간극장에서 “현대무용의 밤”은 소극장 운동의 효시로 평가받는다. 이후 진행된 소극장 공연을 통해 수많은 신진무용가들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으로 한국무용계가 성장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이가현, 1997:31).

소극장 춤 운동의 확산과 함께 거론할 만한 사항은 컨템포러리 단원들이 대학의 지도자로 가면서 전문인력 양성과 왕성한 공연활동으로 춤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들은 하정애(신라대 교수 역임), 이정희(중앙대 교수 역임), 김복희(한양대 교수 역임), 김화숙(원광대 교수 역임), 박명숙(경희대 교수 역임), 박인숙(한성대 교수역임), 양정수(수원대), 서영희(청주대 교수 역임), 김기인(서울예전 교수 역임), 황문숙(용인대), 신상미(이화여대), 안신희(국민대 교수 역임), 조은미(이화여대), 김양근(숭의여대), 김현남(한국체대), 전미숙(한국예술종합학교), 김원(전북대), 반주은(수원여자대학교), 이윤경(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이연수(동덕여대) 등으로 이들의 면모를 통해 한국 컨템포러리 무용단 뿐 아니라 현대무용 발전사를 살펴 볼 수 있다.

육완순은 마사그레이엄 테크닉이라는 구체적 실기방법론을 도입하여 대학 내 교육의 일환으로서 현대무용을 정착,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았다. 정규교과과정 뿐 아니라 방과 후 레슨, 워크샵, 월례발표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교육 경험 및 활동에 대한 좌표를 제시하며 무용이 하나의 학문 및 예술 분야임을 인식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동문 무용단의 결성을 통해 보다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춤을 지향하므로 한국춤의 창작열풍을 주도하고, 공연예술 인력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Ⅲ. 작품 세계

1. 한국적인 소재의 현대화, 세계화

육완순이 그동안 보여주신 작품에서는 일관되게 우리 것을 소재로, 이를 움직임으로 형상화하고 국내 뿐 아니라 이를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육완순은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일정한 테크닉을 갖춘 현대무용 방법론을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오케시스 무용단 및 육완순 개인이름을 내걸고 공연을 하였다.

이 시기 발표된 《논개, 1963》, 《초혼, 1965》, 《뭇잇어, 1966》는 한국의 여성성, 애정, 그리움 등을 모티브로 한국적인 정서와 소재를 현대 무용화하려는

시도이다. 1971년 제 5회 육완순 현대무용 발표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대표하고 민족 정서의 바탕이 되는 건국신화를 소재로 《단군기원》을 발표하였다. 《단군기원》은 “하늘나라, 사람되어지다”, “하늘과 땅의 사랑”, “단군 탄생”의 부분으로 나뉘며, 생명창조의 진통과 집단적 역사의식 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김애진, 1988:30).

1972년 이화여대를 잠시 휴직하고 마사 그레이엄 학교 수학 시 카네기 홀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다. 당시 뉴욕에서 한국무용 지도를 하고 있었던 조원경의 격려 하에 1972년 6월 29일 《화관무》, 《살풀이》, 《가면무》, 《승무》, 《단군기원》, 《숲》(황병기의 가야금 곡) 등을 공연하였다(문애령, 2001:203). 이는 한국적 정서와 소재를 다룬 작품의 대외적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양정수, 1999:146).

육완순은 이후 《학 I, 1984》, 《비파소리, 1985》, 《한두레, 1986》, 《실크로드, 1987》, 《물마루, 1988》, 《만남, 1991》, 《학II, 1993》, 《鶴아, 2001》, 《실크로드 II, 2005》, 《실크로드 III, 2007》등 우리 것을 소재로 작품화하고, 나아가 이를 국제무대에 선보이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실크로드, 1987》는 고대의 동서문물을 교역하던 통로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며 황병기의 산조가락과 어울려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최경희, 1990:22, 28). 일정한 리듬 없이 자유롭게 연주되는 산조음악은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갈수록 리듬이 빨라져 긴장감을 더해가며 발동작이나 팔동작에 전통적인 춤사위를 가미하여 음악, 의상, 움직임 등을 통해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최경희, ibid:65).



그림 2 실크로드

한편 육완순은 선비의 이상적인 성품과 장수를 상징하는 학(鶴)을 소재로 연작을 발표해 왔다. 《학 I》과 《학 II》가 학의 고고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라면 《鶴아, 2001》는 전남 목포 앞 삼학도(三鶴島)에 얽힌 사랑의 전설을 춤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작품들 가운데 극적인 요소가 가장 강하다. 이 작품은 희곡 작가인 차범석의 대본을 기본으로 하나 단지 전설을 기초로 한 서글픈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화살을 맞고 학이 내린 바다위에 세 개의 섬이 정답게 떠오르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슬픔을 승화시켜 더 아름다운 사랑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의 꿈을 담고
자 하였다(김성익, 2001년 12월 13일).

육완순의 안무가로서 관심은
우리 것을 소재로 해석하고 작품
을 창조하여 세계화하려는 시대
의 흐름과 맥을 나란히 한다. 이
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현대무용
계의 대표적인 거목인 이정희,
김복희, 김화숙, 박명숙, 김기인, 안애순 등의 제자를 통해서 다양한 양상으
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그림 3. 鶴아 학아

김복희, 김화숙, 박명숙, 김기인, 안애순 등의 제자를 통해서 다양한 양상으
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2. 종교적 소재를 통한 춤의 대중화(수퍼스타 예수그리스도)

《수퍼스타 예수그리스도》는 1973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부활절
채플을 위해 초연되었다. 당시 이화여대 교목실장이었던 서광선은 대학 내 채
플을 인도하며 예술적이면서도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었다. 서광선은 미국 유학시절 룸메이트로부터 선물 받은 록 오페라인 《수
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며, 같은 대학 내 육완순이 무엇인가 창의적인
생각을 해 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한다. 부활절 채플 전 종교위원회
가 열렸다. 육완순은 90분 전막을 안무하여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판단되
어 일부를 올렸고, 역사적인 《수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선보이
게 된다. 부활절 공연 이후 감동과 힘을 얻은 육완순은 전곡을 무용으로 창작
하여 전국을 다니며 공연했다. 국내 공연 뿐 아니라 1975년에는 무용단을 이
끌고 미국으로 건너가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등지에서 열광리에
공연을 하였다. 1983년에는 예술의 본고장 이탈리아로 날아가 한국의 수퍼스
타를 널리 알렸다. 서광선은 이 작품에 관해 ‘육완순의 예배’라고 언급하며,
종교성과 예술성이 춤사위 속에 가미된 일생일대의 작품이며 한국 종교사와
예술사 가운데 우뚝 서게 된 작품이라 칭하였다(서광선, 2008:3-7).

《수퍼스타 예수그리스도》가 초연되기 이전 《부활, 1965》이란 작품은 육
완순의 종교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작품으로 이후 《수퍼스타 예수그리
스도》의 모체가 되기도 한다(김애진, 1988:25). 《수퍼스타 예수그리스도》는 뮤지
컬계의 거장 Andrew Lloyd Webber의 음악을 움직임으로 형상화한 작품으
로 춤의 생동감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대단한 반응을 얻어냈고 춤의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일조하게 되었다(이순열 외 2인, 1993:53). 초연이후 40년간 장기공연은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일이 되고 있다. 일반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스토리와 음악, 깨끗하고 정리된 춤과 구성, 풍성한 볼거리, 작품 전면에 스며있는 깊은 영감은 고정 관객층을 형성하게 된 요소이기도 하다.



그림 4. 슈퍼스타 예수그리스도,
최후의 만찬:예수와 가롯 유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80여만 명의 관객을 창출하며 현대무용의 불모지와 같았던 이 땅에 현대무용을 정착시킨 영향력은 그 어떤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육완순의 가르침을 받아 무대에 섰던 수많은 제자들 역시 이 작품의 역사와 함께 한국의 현대무용 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무용인들로 성장하였다(문애령, 2001:207). 이 작품을 통해 배출된 제자들의 면면 또한 곧 한국의 현대무용 인물사이며, 계보라고 할 수 있다. 슈퍼스타를 통해 배출된 제자는 앞서 언급된 이정희, 김복희, 김화숙, 박명숙, 박인숙, 양정수, 김기인, 황문숙, 안신희, 조은미, 김양근, 김현남, 전미숙, 김원, 이윤경 외에 안애순(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황미숙(파사무용단 대표), 안은미(현대무용가), 최혜정(계원예고 무용부장), 김희진A(현대무용가), 김희진B(현대무용가), 장은정(서울예전 겸임교수) 등이 있다. 이 외 남성 무용수로는 강만홍, 박일규, 안정준, 홍승엽, 최두혁, 서병구, 김성한, 류석훈, 박호빈, 박해준, 정운식, 박진수, 김성한, 예효승, 안영준, 주재만, 황영근, 김영재 등 기라성 같은 무용가들이 젊은 시절 이 작품을 통해 꿈을 키웠다.

3. 현대 춤의 대중화를 위한 다른 시도

육완순은 《슈퍼스타 예수그리스도》 작품을 통해 이야기가 있는 호소력 짙은 대중적인 음악이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강렬하게 그리고 쉽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였다. 이에 육완순은 사위이자 대중가수로 널리 알려진 이문세와 2000년 “육완순과 이문세의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기획한다. 육완순은 대중가수로 널리 알려진 사위 이문세의 노래를 들으며 매우 서정적이고, 이를 춤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육완순 개별면담,

2012년 10월 23일).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즈음인 1999년에 육완순은 이문세에게 대중음악과 무용과의 만남이라는 공연을 제의하고, 장모와 사위는 의기투합하여 2000년 밀레니엄 맞이 기념공연을 한다. 이때 공연은 제 1부 간이역에서-꽃다발을, 제 2부 빗물을 위한 작은 전람회 등으로 구성되었다(유인화, 2000:82). 공연은 서울의 국립 중앙극장 뿐 아니라 대구, 전주, 부산, 인천 등에 걸쳐 순회되어 대중음악을 예술적인 춤으로 표현한 작품을 통해 좀 더 폭넓게 관객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이외에 88 서울올림픽 개회식 《해맞이, 1988》, 대전 EXPO 93 개회식 축하공연 《문명의 사계, 1993》, 광복 50주년 기념경축식 행사 《통일 환타지, 1995》, 서울환경예술제 《공해 없는 동물의 축제, 1996》, 전주·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폐회식 《아리랑, 1997》,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회식 《강원찬, 1999》, 99 하남국제환경엑스포 개회식 《죽은 나무 꽃피우기, 1999》, 새천년맞이 자정행사 《오는 천년, 1999》 등 굵직한 행사마다 여러 주제를 춤으로 형상화하여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현대무용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육완순, 2005:218-219).

IV. 연구 및 저술활동

1. 학문적 연구

앞서 작품 활동을 통해 살펴 본 와 같이 육완순의 관심은 우리 것을 어떻게 현대무용으로 표현하고 창작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술적 관심은 석사논문 주제인 “모던댄스의 창작적 가치와 한국적 정서표현”(1961)에 근거한다(육완순 개별면담, 2012년 9월 10일). 육완순은 학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작품을 실제화하였고, 실기와 이론이 결합된 연구와 발표를 지속하였다. 1975년부터 2002년에는 ICHPER · SD International council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Sport, and Dance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현대무용을 발표하고 지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1975년 네덜란드 로텔담 ICHPER · SD 참석을 계기로 1979년 독일 카일대학교 《살풀이》외 2 작품, 81년 필리핀 마닐라 국제 컨벤션 센터 《전설》외 2 작품, 83년 이스라엘 왕게이트 대학교 《학》과 《무녀

도》, 85년 런던 대학교 《기도》, 《살풀이》, 87년 캐나다 밴쿠버 UBC 대학교 《실코로드》, 89년 미국 프로스트 버그 대학교 《살풀이》, 2002년 대만 타이페이 국제회의장 《간이역》, 《꽃다발》 등이 해당된다.

공연 및 워크숍 지도 외 강연을 통해 발표된 논문은 “Modern dance in Korea-Its past, present, and future”, “Korean classical dance as base for modern dance choreography”, “Aesthetic development through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modern dance” 등이다. 이상의 공연 및 워크숍 지도, 논문을 통해 육완순은 한국적 현대무용의 진행과정, 현황, 발전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2002년 ICHPER·SD 회의에서 육완순은 학자, 교육자, 예술가로서 공적을 인정받아 무용학자상(Biennial Scholar Award in dance and Education)을 수상한다(최혜리, 2002:43).



그림 5. 87년 밴쿠버 국제회의의 팸플릿

2. 저술 활동

육완순은 1979년부터 대학무용교육과 관련한 저술활동으로 무용학 발전을 도모하였다. 『현대무용, 1979』, 『현대무용실기, 1981』, 『무용즉흥, 1983』, 『안무1984』 등은 육완순의 주된 학문적 관심분야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저서로서 무용 전공자에게 필요한 기본 도서이기도 했다. 육완순은 안무와 즉흥, 실기 분야의 저서 외에 역사, 교육, 해부학 등 고른 학문적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서적을 출간했다. 『서양무용 인물사, 1986』, 『무용교육과정, 1992』, 『陸完順-나의 춤 半世紀, 2003』, 『무용교육과정-개정판, 2010』 등이 있으며, 역서에는 『프랑소와 델사르트와 예술세계, 1979』, 『무용연극요법, 1980』, 『무용인들을 위한 해부학, 1981』, 『이사도라와 에세닌, 1988』, 『마타 그라함, 1984』, 『무용예술, 1985』, 『무용가에게 보내는 노베르의 편지, 1987』, 『에포트, 1989』, 『다이어트, 1999』 등이 있다.

이상의 국제 학술회의를 통한 연구와 저술활동 외에 2005년에는 「한국현대무용무지엄」 축제(공연, 전시, 학술심포지엄, 도서출판 등)를 개최하여 한국현대무용 반세기의 역사적 발자취를 총 정리하고 미래적 비전을 전망하고자 했다.

육완순은 1980년에 「한국 현대무용협회」를 창립하여 현대무용의 연구 및 창작, 교육 및 신인육성, 출판 및 홍보,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업을 전개하여 현대 무용인들의 활동무대를 넓혀주고 한국현대무용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1982년부터 협회에서 주최한 국제현대무용제는 우리 창작 무용계에 커다란 활력을 제공하며 우리 춤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 하며 오늘날 MODAFE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로 성장하는 결실을 맺었다.

또한 1985년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진흥회를 문화체육부 등록단체로 발족하여 현대무용 안무활동을 비롯해서 현대무용의 국제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주관으로 그동안 진행해 온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춤 교육을 위한 국제 교류, ADF와 KDF.

육완순은 1990년부터 현대무용의 세계적인 대제전인 미국의 ADF American Dance Festival를 서울에 유치하여 다양한 워크샵과 공연을 통해 현대무용계의 또 다른 발전을 도모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ADF는 1934년 미국 Bennington 대학에서 시작된 이래 지난 70년 동안 정상을 달리는 현대 무용가들이 함께 모여 여름마다 개최해온 무용 대축제이다. 이 축제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기와 이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 및 초청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계 현대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학생 개개인이 예술가로서의 자질과 가능성을 개발하도록 한다(한국현대무용 진흥회, 2010: 24).

육완순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세계 현대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교육내용을 접하며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김경애, 1991:12). 사실 1990년 ADF 서울 유치는 육완순의 오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이다. 육완순은 1962년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수학 시 코네티컷에서 개최된 ADF에 참여하여 마사 그레이엄, 호세 리몽, 엘빈 에일리에게 사사 받았다. 무용계 박람회 혹은 무용계 전시장이라 불리는 ADF 참여하여 체험한 예술가와 학생들의 새로움에 대한 도전과 실험 정신은 육완순

에게 큰 충격과 감흥이 되고도 남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후 육완순은 1987년 미국 ADF에서 실크로드를 공연하며 한국 ADF 유치를 논의하였다. 1989년에는 52명의 학생들이 대거 미국 ADF에 참여하여 한국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와 가능성을 주최 측에 인식시켜 주었으며, 드디어 1990년 제 1차 ADF 서울이 유치되었다(육완순 개별면담, 2012년 10월 23일).

전국에서 499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과 13명의 외국 교수진과 1명의 한국 교수진(한국무용, 손경순)이 참여하였다. 또한 68년 창단되어 많은 현대무용 레파토리를 보유한 데이턴 Dartyton 무용단과 가장 최신 경향의 실험 작품을 선보인 더그 바론 Doug Varone 무용단 등의 내한 공연 등으로 참여인력이나 내용과 규모면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한국현대무용진흥회, 2010:25).

1992년부터는 KADF Korea ADF 라는 명칭 하에 페스티벌을 진행하였고, 1992년 이후 격년제로 변경되면서 지속적으로 춤 교육의 국제 교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한국이 주체가 되어 명실상부한 국제적 모임을 주관하려는 취지하에 KDF Korea Dance Festival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KDF는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교수진들을 영입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창작과 테크닉 외에 줌바라인, 라인 댄스 등 최근의 사회적인 동향 및 참가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므로 독자적인 행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한국현대무용진흥회, 2006:6).

2. 국내 안무가의 세계 진출, 서울 국제 안무 페스티벌

육완순은 국내 유능한 안무자에게 국제무대 진출의 기회를 제공해주시기 위해 1992년부터 프랑스 바뇰레 국제 안무가대회에 참가를 도모하였다. 1960년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프랑스 무용가들을 후원하기 위해 바뇰레 시에서 시작된 콩클은 도미니크 바구에, 조엘 부비에, 필립 드쿠플레, 카트린느 디베레스, 장-클로드 갈로타 등 오늘날 프랑스의 현대무용계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 안무가들을 배출해 내므로 프랑스 현대무용의 산실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1986년 바뇰레 콩클은 보비니 문화의 집으로 본거지를 옮기면서 ‘샌 생드니 국제 안무의 만남(Rencontres chore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으로 이름을 바꾸고 세계 각국의 현대무용의 현주소를 짚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장인주, <http://cafe.daum.net/performancegirl/EmzH/59>).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안애순이 《씻김》으로 본선 첫 진출을 하였다. 2년

후인 1994년에는 전 세계 200여명의 예선자 가운데 본선 19명이 확정되었으며, 이 중 우리나라의 김원 《님의 침묵》과 안애순 《여백》이 진출하고, 한국 컨템포러리 무용단이 최고 무용수상인 아담 ADAM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후 1996년에는 이윤경 《기우는 달》이 대회 그랑프리과 주재만이 연기상을, 1998년에는 안애순 《열한 번째 그림자》가 역시 그랑프리를 수상하므로 한국을 대표하는 안무가 및 무용수들을 세계 무용계에 각인시키고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대회를 통해 세계무대(프랑스를 비롯, 독일, 이스라엘, 핀란드, 일본 등)로 진출한 안무가들은 안애순, 김원, 이윤경, 안정준, 장애숙, 최두혁, 김용철, 김윤수, 이경은, 장은정, 이명찬, 박종현, 류석훈, 김재덕, 이연수, 허경미, 유호식, 김정은, 김진미, 정보경, 신창호, 김은희, 김남진, 전학진, 이한범, 최진주 등이다.

2008년부터는 한국 현대무용진흥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대표적 안무대회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 국제 안무 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한국현대무용진흥회, 2011: 56).

3. 세계 청소년 무용축제

육완순은 미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춤을 통해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청소년 무용축제를 개최하였다. 1997년 제 1회 개최 당시 세계 청소년 무용축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들은 지구촌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량한 국제인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행사는 서로의 문화를 통해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친구임을 인식케 해주는 만남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한국현대무용진흥회, 1997: 1).

1997년 제 1회 서울 세계 청소년 무용축제(주제: 평화 그리고 무용)에서 춤을 통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의를 다지며 미래의 인류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1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핀란드,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8개국에서 15개의 어린이 무용단이 문화사절단으로 참여하였다. 2003년~2009년에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며, 참가단체는 앞서 제시한 나라 외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인도,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국내외 48개 단체에 이른다(한국현대무용진흥회, 2009:29). 세계 청소년 문화축제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힘과 예술적 창조력을 배양하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으로, 국가와 문화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고자 했다.

본 논문은 현대무용가 육완순의 활동을 대학무용교육, 작품세계, 연구 및 저술, 국제교류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었다.

육완순은 현대무용의 불모지와 같았던 이 땅에 구체적인 현대무용 실기 방법론을 도입하여 현대무용이 대학교육의 일환으로서 자리 잡는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오케시스 무용단과 컨템포러리 무용단을 창단하여 제자들의 도전과 실험정신을 격려하며 한국 춤의 창작열풍을 주도하고, 공연인력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육완순의 가르침을 통해 배출된 제자들은 상당수 대학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배출된 전문 인력과 이들을 통한 활발한 공연활동으로 인해 춤 문화가 한층 더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육완순의 작품세계는 한국적인 소재를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형상화하려는 시도로부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수퍼스타 예수그리스도, 대중음악을 통한 관객과의 새로운 만남, 환경 및 과학 등 일상적 주제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육완순은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 한국 현대무용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여러 관객층과의 만남을 시도해 왔다. 이를 통해 현대무용의 인식 확산과 관객의 저변 확대, 공연예술로서 현대무용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공헌하였다.

한편 육완순은 실기와 이론이 결합된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한국적인 소재의 작품 대부분은 “모던댄스의 창작적 가치와 정서적 표현”이라는 석사 학위 논문을 근거로 한다. 육완순의 대표적인 저서를 통해 주된 연구영역이 안무와 즉흥 등 창작영역과 실기영역임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외 역사와 교육, 미학, 해부학 등을 망라하여 무용관련 서적을 편찬하고 번역하여 무용학 탐구의 방향 및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육완순의 이와 같은 학문적, 예술적 공적은 ICHPER · SD의 무용학자상 수상으로 귀결되어진다.

육완순은 현대무용의 국내 발전 뿐 아니라 국제 교류를 통해 교육, 국제적인 안무가와 무용수 양성, 해외 진출 등에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보였다. KDF, 세계 청소년 무용축제, 바놀레 국제 안무 대회 및 서울 국제 안무 페스티벌을 통해 배출된 작품과 인력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육완순은 대학 내에서 현대무용이 하나의 학문 및 교육으로서, 공연예술의 일환으로서 정착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행적은 대학교육을 통한 무용인재 양성, 무용작품을 통한 무용의 대중화 및 저변화, 무용학 탐구의 방향과 가능성 모색,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현대 무용의 국제화 측면에서 그 의의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육완순 생애는 한마디로 창조와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육완순의 춤에 대한 열정, 도전정신, 창의성, 추진력 등은 이 시대의 귀한 표본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육완순과 같은 창조형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무용계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경애(1991), “춤 국제 교류의 새장을 연 ADF SEOUL”, 한국현대무용 진흥회, **춤 이미지 제 4호**, 70-73.
- _____(2002), **2002년 한국의 무용가**, 서울: 댄스포럼.
- 김말복(2000), **무용의 이해**, 서울: 예전사.
- 김애진(1988), “한국현대무용의 주제에 대한 고찰: 60-70년대의 공연작품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희진(1991), “저드스 그룹”의 초기활동과 한국현대무용의 상관관계 연구: 1980년대 현대무용의 소극장 공연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문애령(2001), **한국 현대무용사의 인물들**, 서울: 눈빛.
- 서광선(2008),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와 한국의 슈퍼스타들”,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35주년 기념 자료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 3-6.
- 신은경(1996), “학문-기반 예술교육(DBAE) 이론에 기초한 중학교 무용교육과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가현(1997), “한국 현대무용 단체의 시대별 흐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순열, 김영태, 김태원(1993), “육완순은 한국의 현대 춤 정착에 결정적 역할”-육완순 30년 기념연에 부쳐, **춤지 11월호**, 46-58.

- 양정수(1999), **한국현대무용사**, 서울 : 대한 미디어.
- 유인화(2000), "육완순과 이문세의 퍼포먼스", **댄스포럼 Vol 7**, 81-82.
- 육완순(1979), **현대무용**, 서울 : 이화여대 출판부.
- _____(1981), **현대무용 실기**, 서울 : 이화여대 출판부.
- _____(1983), **무용즉흥**, 서울 : 신흥출판사.
- _____(1986), **서양무용인물사**, 서울 : 금광.
- _____, 이화선(1992), **무용교육과정**, 서울 : 금광.
- _____(2003), **육완순 나의 춤 반세기**, 서울 : 마루.
- _____(2005), **한국현대무용 그 얼굴들**, 서울 : 마루.
- 최경희(1991), "한국에 있어 현대무용의 한국화 작업에 대한 고찰 : 소재, 주제, 미형식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_____(2000), "대학 무용(학)과의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_____(2005), "한국현대무용의 발전과 새로운 지평-한국 고등무용교육의 역할 및 미래 전망", 한국현대무용 뮤지엄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19-43.
- 최혜리(2002), "ICHPER · SD 세계대회에서 '무용학자상' 수상한 육완순 선생", **창무예술원, 몸지 통권 93호**, 43-44.
- 한국현대무용 진흥회(1997), 제 1회 어린이 무용축제 팸플릿, 1.
- _____(2009), 평화 그리고 무용 2009 서울 세계 청소년 무용축제 팸플릿, 29.
- _____(2006), 2006년 KDF 국제하게 현대무용 페스티벌 팸플릿, 6.
- _____(2010), 2010년 KDF 국제하게 현대무용 페스티벌 팸플릿, 24.
- _____(2011), 2011 SCF 서울 국제 안무 페스티벌 팸플릿, 56.
- Gelabert, R.(1964), 육완순, 임미재(공역 1981) **무용인을 위한 해부학**, 서울 : 고문사.
- Lawrence, F. C.(1974), _____(역 1989), **에포트**, 서울 : 금광.
- McDonagh, D.(1973), _____(역 1984), **마타 그라함**, 서울 : 금광.
- McVay, G.(1980), _____(역 1988), **이사도라와 에세닌 :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고**, 서울 : 금광.
- Metter, B(1980), _____(역 1984), **무용예술**, 서울 : 금광.
- Noverre, J.(1981), _____(역 1987), **무용가에게 보내는 노베르의 편지**, 서울 : 금광.
- Shawn, T.(1976), _____(역 1979), **프랑소와 델사르트의 예술세계**, 서울 : 교육과학사.
- 장인주, "비블레 국제 안무 콩쿠르", <http://cafe.daum.net/performancegirl/Emzh/59>, 2016년 5월 30일 검색.
- 육완순 개별면담, 2012년 9월 10일.
- 육완순 개별면담, 2012년 10월 23일.
- "오케시스 무용(舞踊) 첫 발표(發表)", 동아일보, 1963년 9월 20일.
- 김성익, "학 몸짓에 서린 슬픈 사랑"...무용가 육완순 '鶴아, 학아', 매일경제, 2001년 12월 13일.